

특집

단과대학 교육 개선 사례

수의과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워크숍

-류판동

수의과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워크숍

특집

류판동*

지난 2007년 2월 22일부터 이틀간 두뇌한국21 수의과학연구인력양성사업 단에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수의대 대학원생을 위한 워크숍'을 수

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개최하였다.

두뇌한국21 사업은 지식 기반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에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유망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핵심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래의 인재인 대학원생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으로는 관련 전문 분야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연구 경험과 능력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언어, 문화, 연구 및 생명윤리 측면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전자를 다양한 학문 분야의 분야별 '전문 역량'이라 한다면, 후자는 분야를 불문하고 대학원생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초 소양'에 해당된다. 기초 소양이 탄탄하면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전문 역량을 관련 국제 학회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들에게 이러한 기초 소양을 교육하기 위하여 언어 측면에서 영어로 말하고 쓰고 발표하는 능력과 기술, 문화적 측면에서 상대방의 사회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와 태도,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 및 생명윤리의 확립 및 실천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을 체득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미래 우리 사회의 전문 지식인임을 감안하면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 리더십, 건강 및 시간 관리 능력의 배양도 필요하다.

*BK21 수의과학연구인력양성사업단장

이번 워크숍은 기초 역량의 계발을 위하여, 발표 능력 및 학습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의 첫날은 소집단 토론 참여와 지도(농업생명과학대학 김진모 교수),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전략(이화여자대학교 김은정 강사),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발성법(서동일발성치료연구원 서동일 원장) 등 세 가지 주제가 다루어졌고, 이튿날에는 멀티미디어형 파워포인트 제작 및 활용(초급, 교수학습개발센터 박은미 연구원), 비디오 분석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실습(교수학습개발센터 이희원 연구교수)이 있었다. 워크숍의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소집단토론' 시간에는 생물학 분야 실습 지도 및 결과 정리 과정에서 조교로

시간	2007년 2월 22일(목)
13:00~14:00	소집단토론 참여와 지도(김진모 교수)
14:10~16:50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전략(김은정 강사)
15:20~15:30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발성법(서동일 원장)

시간	2007년 2월 23일(금)
14:00~15:50	멀티미디어형 PPT 제작 및 활용(초급)(박은미 연구원)
16:00~18:00	비디오 분석을 통한 프레젠테이션 실습(이희원 연구교수)

서의 지도 능력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프레젠테이션 전략' 시간에는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효과적인 방법,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활용법 및 설득력 있는 발표 방법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이 있었고, '발성법' 시간에는 실제로 대학원생 개개인의 목소리에 대한 진단을 받고 좋은 목소리를 위한 습관 소개 및 발성법 실습을 하였다. 'PPT 제작 및 활용'과, '프레젠테이션 실습'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희망자가 많아 반을 나누어 일정을 재조정하여 수행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총 81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민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에 참여한 51명으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라는 물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와 '매우 도

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소집단토론의 경우 76%, 프레젠테이션 전략의 경우 100%, 발성법의 경우 92%이었다. 다음은 워크숍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소집단토론은 지금까지 토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부족하였는데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고 실질적인 예와 공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토론할 때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수업이나 단체의 소모임을 주관할 때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그 방법을 알고자한다고 평가하였다.

프레젠테이션 전략의 평가에서는, 다양한 실전 예제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사용 기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발표 자리에서 서게 될 때마다 고민했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주어 몇몇 실전 기술을 통해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지만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분야와 모르고 있었던 ppt 기능들을 알게 되어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적인 자료 만들기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발성법 강좌의 평가에서 발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견과 자기의 발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알았으며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수업 내내 즐거웠고 목소리 열리는 법을 배우며 직접 실습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성대를 사용하여 내가 발표할 때 좋은 목소리로 발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현재의 석사 및 박사과정 교육 과정은 분야별로 전문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스탠더드와 전문 지식인에 걸맞는 기초소양의 배양을 위한 교육 과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기초 소양에 대한 대학원 교육 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다른 어진 내용들은 개인이나 연구실의 선후배간의 교류를 통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위의 평가 결과는 학생들도 이러한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BK21 수의과 학연구 인력양성사업단에서는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이러한 워크숍과 영어 논

문 작성법, 리더십 등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기초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며 학생들의 호응과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했었다. 그것은 연구로 바쁜 대학원생들에게 하루를 내어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고 위의 평가 결과처럼 이번 워크숍이 수의대 대학원생들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매우 유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설문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방법, 영어 논문 작성법, 파워 포인트 활용법, 엑셀 활용법 등으로 베워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 교수학습개발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